

부마띠, 캄보디아를 걷다

캄보디아팀 10기
10월보고서

목차

스케줄

Atti's Calender

스텝회의

수정된 아띠 스케줄

YDP 활동

YD 영어수업

Handicraft

한국어교실

한국요리교실

End Poverty

CCAMH 방문기

CDP 활동

CD 영어수업

Organic Fertilizer

버섯농가

드러귤농가

Farmer's Conference

그 외 활동

프쑹번휴가 캄보디아에 다가서다 킬링필드 CD Class 회식

아띠 잔병치레 단원 개인소감 한달 총평 부마띠 검색어

부마띠 말말말 Bora's letter 부마띠 사진관

10_{2013.} October

Atti's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비자갱신
베트남국경방문

아띠휴가

프츨뵁 휴일

아띠휴가

아띠휴가

6

아띠휴가

7

CD
유기농비료
제조

CD 8

오리/ 드러꾼농가
방문, 마을 영어반
첫만남

9

CD
버섯농가 활동

YD 10

CCAMH방문
CD
버섯농가 활동

11

광욱 눈병

12

End Poverty
1차캠페인 진행

13

14

버섯농가 활동
마을 영어반 시험

15

버섯농가 활동

16

버섯농가 활동
유선 눈병

17

2차캠페인 준비

18

2차캠페인 준비

19

End Poverty
2차캠페인 진행
의성 장염

20

YD주

21

YD/CD 스텡회의
(YD/CD활동 통합)
한국어 수업 시작

22

영어수업
한국어수업

23

휴일
킬링필드 및
프놈펜 탐방

24

영어수업
한국어수업
Handicraft 시작 영어수업

25

한국어수업
(요리교실)

26

YDP CD반 송별회

27

CD주

28

CD 스텡회의

29

드러꾼 농가
활동시작

30

드러꾼 농사
영어수업

31

영어수업

스텝회의

1. 아피들의 활동 스케줄에 관하여

9월~10월 중반 까지 유선,은지 단원은 YD일을, 보람, 광욱, 의성 단원은 CD일을 하고 있었다. 애초에 정해졌던 독립된 숙소가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단원들이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일마저 분리되어 하다보니, 본디 아피의 '팀 생활'의 의미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사무국과 아피들이 함께 생각한 결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스케줄을 조정 했다.

2. 아피들의 자유에 관하여

아피들은 사이트와 기관이 바뀌는 첫 기수이기 때문에 현지 기관인 까리파스에서 아피들의 안전문제에 민감했다. 더군다나 독립된 숙소가 아닌 기숙사에 아이들과 살다 보니 이곳 Youth들의 규칙이 아피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아피들도 이곳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주 가까운 곳조차 3~4명의 스텝들에게 몇 번을 허락 받아야 했고 따라서 아피들은 캄보디아 문화나 여러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 했다. 또한 수업준비나 병원과 같은 급작스러운 일로 센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도 큰 제한이 있었다. 아피들은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 하고 이곳의 규칙을 준수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 받고자 건의 했고, 가까운 시장 정도는 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수정된 아띠 스케줄

	Time	Mon	Tue	Wed	Thur	Fri	
YDP주	A.M.	8:00-9:00 영어수업 경영/회계반					
		9:00-10:00 전시간 피드백 및 수업 준비					
		10:00-11:00 영어수업 IT반/미술반					
		11:00-12:00 전시간 피드백					
		12:00-1:00 점심시간 ♥					
	1:00-2:00 점심시간 ♥						
	P.M.	2:00-3:00		핸디 크레프트	수업준비	핸디 크레프트	요리 수업 재료 및 기구 정비 연습
		3:00-4:00					
		4:00-5:00					
		5:00-6:00 한국어수업 Youth반/아이들반					
CD주	A.M.	8:00-9:00 CD 마을 일					
		9:00-10:00 CD 마을 일					
		10:00-11:00 CD 마을 일					
		11:00-12:00 점심시간 ♥					
		12:00-1:00 마을 아이들 영어 수업					
	P.M.	1:00-2:00 CD 마을 일					
		2:00-3:00 CD 마을 일					
		3:00-4:00 센터로 귀가/ 수업준비					
		4:00-5:00 센터로 귀가/ 수업준비					
		5:00-6:00 한국어수업 Youth반/아이들반					

YDP **활동** **포토**



YD 영어수업

수업대상

파리파스 youth
Administration,
Accounting,
IT 반

수업목적

YD에는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영어 수업이 있었다. 하지만 스텝들은 그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너무 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피들이 별도의 영어수업을 해주었으면 했다.

아피들의 고민

스텝들이 해준 이야기를 참고하여 반을 나누어 기존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기존 수업이 너무 쉬운 아이들을 보충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피들이 하는 영어 수업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닌 아이들의 쉬는 시간에 진행 되었고, 여러 반의 시간이 잘 맞춰지지 않아 결국 레벨을 나누지 못했다. 아피들은 결국 수업을 중간 정도의 레벨로 맞추어 진행했는데, 또 다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너무 쉬워하는 아이들로 양극화 되었다. 아피들은 아이들의 쉬는 시간 까지 뺏어가며 하는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다.

Handicraft

- ❖ 수업대상 : 까리파스 YOUTH
- ❖ 수업취지 : 유스들이 리본 공예나 파우치만들기와 같은 핸드크레프트에 관심이 많으나,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재료 같은 것을 어디서 구할지 몰라서 스태프들이 아피들에게 수업을 요청하였다.
- ❖ 아피들의 생각 : 처음엔 남자 단원들이 핸드크레프트 수업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시작을 하고나니 YOUTH 남학생들도 많이 와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또 마냥 가르치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어 수업

아띠는 10월 21일부터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대상을 센터 주변 마을 주민들과 센터 학생들 모두로 하였더니, 마을 아이들이 15 ~ 20명 정도 참여하여서 센터 학생들 반과 마을 아이들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띠의 고민

센터 학생들 반은 처음엔 15명 정도 참여하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자음과 모음을 어려워 하면서 한 명씩 빠지기 시작했으며, 열심히 참여하던 CD반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센터를 떠나면서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또한 너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하면서 센터 반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는 어른 한 분이 계셔서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요리 교실

아띠는 한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격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 본 음식은 쉽게 만들고 먹을 수 있는 ‘호떡’이었다. 학생들과 아이들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만드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하였다.

아띠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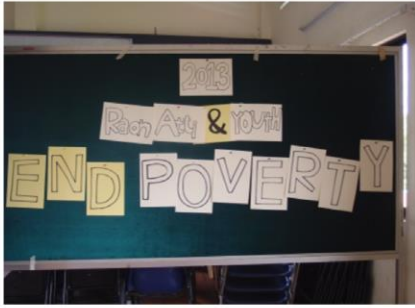
한국 요리 교실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적은 예산과 장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요리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료를 사려고 하니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요리 교실이 진행되는 시간이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과 겹쳐서 부엌이 많이 복잡해, 아띠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End Poverty in Cambodia

나와 타인의 빈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확장하는 활동을 센터 youth들과 함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주에 걸쳐 1차, 2차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1차는 개념의 확장을 목표로 두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2차 캠페인은 생각을 액션으로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1차 캠페인에 비해 2차 캠페인 때 함께한 학생들의 수는 적었지만, 더욱 깊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로 END POVERTY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 또한 기억에 남는 점이었다.

End Poverty in Cambodia



End Poverty in Cambodia



CCAMH 방문기

캄보디아 파리따스는 캄보디아 정신보건센터인 CCAMH(Centre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를 위탁운영 하고있다. 10월 10일, World Mental Health Day 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파리따스 유스센터의 유스들이 축하공연을 하게되었고, 유선단원과 은지단원이 행사스텝으로 CCAMH를 방문했다. 여러가지 직업교육을 받는 유스들답게 공연분장은 미용수업을 듣는 샬샤가 직접 해주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만큼 성공적으로 축하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CCAMH는 원래 아띠의 활동공간으로 보람단원이 혼자서 활동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기관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아띠의 활동을 CCAMH에서도 연계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CDP 활동



CD 영어수업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마을 아이들 중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현지 스텝들로부터 마을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수업을 진행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런저런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Svay prey 마을의 심손 아주머니께서 집을 빌려주셔서 그 곳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아티의 고민

마을 아이들의 실력이 상이함에 따라 반을 나누어,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반과 문장을 가지고 따라 읽어보고 만들어보는 반으로 나누었지만, 문장을 만들고 쓸 수 있는 아이가 1명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원들 4명이 알파벳 반에서 같이 활동하고 1명씩 돌아가면서 1명을 맡아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격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 고민을 하고 있다.



Organic Fertilizer



10월 7일 월요일, Taut Ma 마을 잉이응 할아버지네 집에서 유기농법에 사용할 천연비료와 방충제를 만드는 활동에 또 다시 참여하였다. 참여한 아띠들은 9월에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만들어 발효시킨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망을 이용하여 원액만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 걸러진 원액들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EM원액과 거의 같은 성분들로, 이 원액을 일정한 비율로 팜슈가와 쌀뜨물과 섞어서 15일정도 발효시킨 후 물과 섞으면 비료와 방충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곳 마을 VDA의 Key farmer들은 이것을 사용한 유기농법으로 수익창출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버섯 농가



Svay prey마을에 있는 스라이 맘 아주머니네 집에서 버섯을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체험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톱밥을 이용해서 버섯 집을 만드는 과정, 버섯 집을 살균하는 과정, 버섯 집 선반을 만드는 작업, 버섯 집에 포자를 넣는 작업들을 함께 활동하고 배웠다. 아피들이 활동을 하면서 버섯 집을 만드는 과정 중 플라스틱 끈을 녹여서 고리모양으로 붙이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여 아피들도 어지럽고 마스크움을 호소한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주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아피들과 현지 스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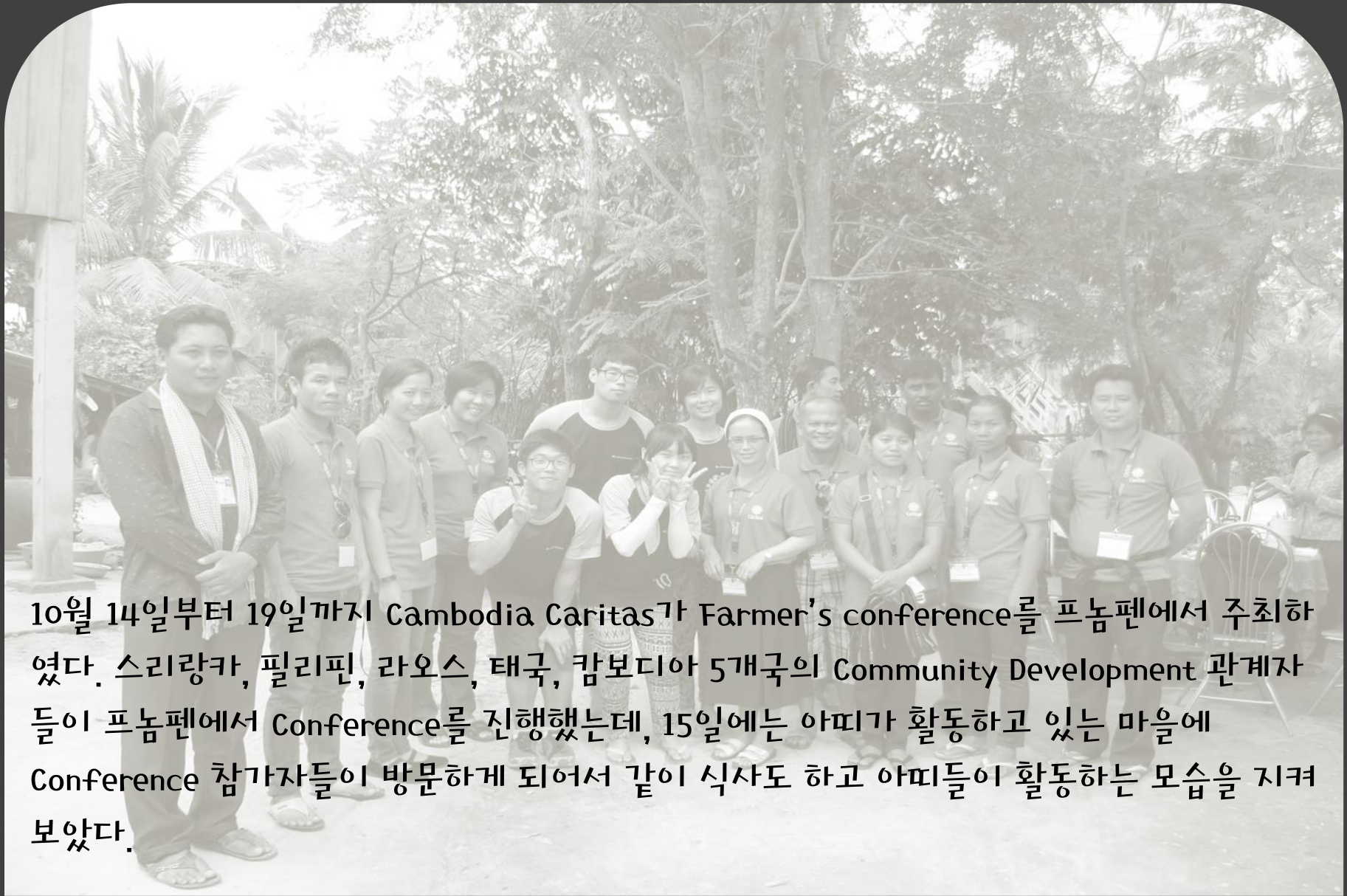


드러꿍 농가

버섯 농가에서의 활동이 끝나고 드러꿍 농가인 사븐 아저씨네 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드러꿍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작업을 했고, 직접 씨를 뿌려 보았다. 5명이 2시간 동안 밭을 갈았는데 역시 농사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작업은 10분도 걸리지 않아서 제대로 뿌린 게 맞는 건지 의아해 하였다. 아피들은 씨를 뿌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수확하는 과정까지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 사븐 아저씨와 대화를 하면서, 드러꿍을 심은 후에 어떻게 드러꿍을 재배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하는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Farmer's Conference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Cambodia Caritas가 Farmer's conference를 프놈펜에서 주최하였다. 스리랑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5개국의 Community Development 관계자들이 프놈펜에서 Conference를 진행했는데, 15일에는 아띠가 활동하고 있는 마을에 Conference 참가자들이 방문하게 되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아띠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활동



프썸번 휴가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의 추석 프썸번!

이 기간동안 캄보디아인들은 7개의 절을 다니며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즐거운 프썸번 기간에 아피는 비자연장을 위해 베트남 국경을 발만 들이고 나왔고,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푸올슬렝과 러시아안 마켓, 소리야 백화점, 왕궁, 실버파고다, 리버사이드 등에 다녀왔다. 휴가를 다녀온 뒤 캄보디아의 역사와 색채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에 다가가다

10월 23일은 파리평화조약을 체결한 날로 캄보디아에서는 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날, 아피는 보라 선생님과 함께 '칭아엑 킬링필드'에 가게되었다. '킬링필드'라는 장소는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1975년에 시작된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살아 나오지 못했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박물관의 개념으로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있다.(킬링필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킬링필드를 본 후 프놈펜에 도착해 리버사이드에 갔다. 왕궁과 실버파고다의 바로 앞에 있는 리버사이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장소이며, 아피들도 프놈펜에 갈 때마다 지나치는 장소이다. 특히 이 곳은 푼레삽 호수에서 내려오는 푼레삽 강과 메콩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수량이 많아서 유람선을 타고 석양을 볼 수가 있다. 아피들도 유람선을 빌려 배 위에서 석양을 보며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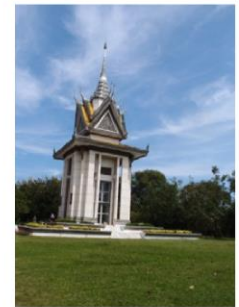
킬링필드는 캄보디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다. 킬링필드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붉은 크메르'라는 뜻)라는 급진 공산주의 정권(민주 캄푸치아)에 의해 당시 1200만 명 인구 중 4분의 1인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을 지칭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4명 중 1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죽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두운 과거이며 캄보디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아피들은 킬링필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프놈펜에 위치한 푸올슬랭 박물관과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총아엑 킬링필드 추모지를 다녀왔다.

푸올슬랭 박물관은 원래 푸올 스와이 브레이(Tuol Svay Prey) 고등학교였으며, 크메르루즈 정권 당시 S-21(보안감옥 21)이라는 교도소로 바꾸어 지식인계층과 양민들을 수감하고 고문하던 곳이었다. 교실이었던 곳은 고문실로 변하여 다양한 고문 도구들로 가득차게 되었고, 감옥은 사람이 눕지도 못할 정도로 좁고 어두웠다. 이 곳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모두 찍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많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지나가다 보면 사진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1979년 초 베트남군이 프놈펜을 공격해 크메르루즈 정권을 몰락시켰을 때 이 감옥에 살아 남아 있었던 수감자는 단 7명에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록에 사용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생생한 기록들을 읽다보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동 건물 3층에는 크메르루즈 정권 당시 주요 인사였고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에 대해 전시되어있다. 이들이 모두 자신이 기소된 죄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랐던 점은 캄보디아인 변호인들이 이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언제 이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들이 모두 노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미뤄진다면 이들은 결국 처벌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부 지도자였던 따목은 재판을 기다리다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이들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이들의 죄가 처벌되어지고 다시는 이런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아예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의 전역에 설치되었던 300여개의 킬링필드 중 한곳으로써 푸올슬랭 감옥의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형되어 매장된 곳이다. 이 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00여명이나 되며 입구에서 보이는 추모비에 8000구의 유골들이 분류되어 안치되고 추모되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오디오투어 기기가 구비되어있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킬링필드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 잔혹한 실상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당시 크메르루즈 군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사용할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농기구 등으로 구타를 하여 처형했고, 심지어 사탕야자 나무 줄기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이 곳은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있었으며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항상 노동가를 틀었기 때문에 킬링필드 주변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오디오해설을 통하여 살아남은 희생자들의 회고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바나나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람 목숨이 바나나 하나보다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하였다. 집단 매장된 장소 중 한곳에서는 여성들과 심지어 아기들의 유골까지 발견되었는데, 이 곳에서 있던 크메르루즈 군들은 엄마가 보고 있는 곳에서 아기들을 나무에 매달아 구타하여 죽이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강간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 곳 킬링필드와 푸올슬랭 박물관은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웃을 수 없고 떠들 수 없고 사진조차 함부로 찍으면 안될 것 같은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오디오 해설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1979년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즈 정권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을 때, 크메르루즈 군은 태국 국경지대로 가서 게릴라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당시 크메르루즈를 지원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과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소련과 동맹국이었던 베트남에 의해 세워진 정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진영 국가들은 크메르루즈 정권을 계속 인정하였고 그들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당시 크메르루즈 군은 UN에서 의석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놀라웠다.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킬링필드의 잔인함과 또 다른 씁쓸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크메르루즈 정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다면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www.eccc.gov.kh/en), 예일대학교 캄보디아 대량학살 연구프로그램(www.yale.edu/cgp), 그리고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www.dccam.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CD Class 회식



현지의 youth development 프로그램은 각 과를 나누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형태이다. 현재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를 마쳐가고 있으며, 벌써 취업을 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학기의 마침으로 인해 각 과마다 회식을 하는데 아띠는 community development 반의 회식을 참석했다. Beauty와 학생의 집에서 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다같이 함께 먹고 게임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띠 잔병치레

10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병이 유행했다. 유스 센터에서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많은 유스 친구들이 눈병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다. 아띠 들이 활동하는 마을에서도 눈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다. 광욱단원과 유선 단원도 CD활동을 다녀온 후 눈병에 걸렸지만, 다행히도 바로 병원치료를 받아 비교적 빠르게 나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스들과 마을 주민들이 약 없이 그저 낫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간이었다.

의성단원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인지 장염에 걸려 한동안 밥도 거르기까지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띠 들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몸소 깨달았다. 따라서 앞으로 몸 관리를 더 잘 해서 건강하게 남은 기간 지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원 개인고민

의성

9월 한 달 동안 팀이 YD와 CD 둘로 나뉘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 활동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팀원들 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았다.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많은 이야기를 나뉘야 할 현지에서의 첫 달에 숙소도 따로 쓰고 둘로 나뉘져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주말에 회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이번 달부터 5명이 함께 활동을 시작했는데도 서로 나눌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아서인지 대화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들과 서로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을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 처음엔 다가오지 않고 경계하던 마을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장난치고 웃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걸 보면 아직 한참 더 노력해야겠지만, 조금씩 마을에 녹아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 유스센터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팀원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유스센터와 마을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 함께 많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단원 개인고민

광욱

9월의 고민 거리가 '소통'이었다면, 10월의 고민거리는 소통에 임하는 나의 '자세'였던 것 같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 쯤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하던 언어공부, 친하게 지내던 유스들과의 관계, 스텝들과의 관계, 팀원들과의 관계.. 모두 소홀히 하면서 스스로 권태기가 왔었던 것 같다. '라온아띠'라는 의미 처럼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다가가고 노력해야 하는데, 나는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다가가는 노력을 중단해버렸었다.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에 보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함께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그 결과, 영어도 크마에도 말을 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는 스텝은 요즘 무슨 일 있냐면서 걱정을 했다. 이 또한 노력의 중단, 소홀함으로 생겨난 결과가 아니었을까..? 11월은 이런 '자세'를 고쳐나가는 한 달을 보내야 겠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단원 개인고민

유선

지난 10월, 나에게 있어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CD활동도 함께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 또, 실습과 취업으로 인해 센터를 떠난 유스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그 동안 맺었던 인연들과 잠시 헤어져야 했다. 그리고 현지 사무국과의 관계, 팀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만남, 지속, 헤어짐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정말이지 많은 고민을 했고, 아직도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된다.' 라는 말을 수 없이 되뇌였던 것 같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고, 지금 당장이 아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다음달은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한다. 어쩌면 가장 간단하고도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다!

* KB Kookmin Bank

단원 개인고민

은지

아티로서의 삶은 고민의 연속인 듯 하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것이나 YOUTH친구들에게 감기약이나 두통약과 같은 간단한 약을 주는 것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보통 국제개발학이나 국제자원활동가로서의 지침 이론을 본다면 본래의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이후에 책임지기 어려운 것들을 지양하도록 되어있다. 아이들에게 굳것질 거리를 사주는 것과 아픈 친구들에게 약을 주는 것에 있어선 약간의 상황이 다르지만 같은 이론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국제 자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 기준과 적용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무엇을 위해'정했냐는 고민이 들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 자원활동'과 '그저 함께 사는 친구'라는 것에서 그 선이 굉장히 미묘할 때가 있다. 만나는,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과 그 이후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 모두 중요하기에 더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다.

단원 개인소감

보람

캄보디아에 온지 벌써 2달이 되었다.

이번 달은 처음 한 달과는 다르게 흘러 갔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재미있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의 선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이었다.

저번 달도 그랬고, 이번 달도 그렇게 살려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간의 선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중간의 선을 유지하면서 가장 힘든 건 믿음 이었다.

모두를 믿지만 조금은 모자란 느낌이 가끔씩 들었고, 그럴 때 마다 내가 문제인 건가 무엇이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통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문을 하게 된 달이었다.

한달총평

1. 일

10월 중순부터 YD팀과 CD팀의 활동이 합쳐졌다. 각자의 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다른 팀의 스텝들과는 교류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활동이 합쳐지면서 다른 스텝들과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팀의 분위기와 활동에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였고 아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였다. 또한 활동을 YD, CD 격주로 하기 때문에 스텝들과 학생들이 아미의 활동패턴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많은 스텝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2. 생활

여자 샤워실이 고장 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고쳐지지 않아서 여자단원들과 여자 학생들이 곤란을 겪었지만 스텝들과 얘기 끝에 샤워실을 고쳐주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다. 9월 한 달 동안 이슈였던 여자단원들 방의 쥐들은 쥐덫을 설치한 후 사라진 줄 알았지만,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6마리가 잡혔다. 또한 쥐가 여자단원들의 음식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쥐와 여자단원들의 최후승자가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다. 쥐가 사는 그집~♪ 또한 흡혈진드기라는 객식구가 새롭게 등장하여서 아미는 물론, 여학생들과 스텝들까지 당황하였다. 처음엔 쥐와 진드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던 여자단원들도 요즘은 그저 웃을 뿐이다. 또한 센터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호수의 물이 넘쳐나서 물바다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센터측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관계

아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유스 학생들이 취업과 인턴십으로 인해 센터를 떠나게 되면서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아쉬웠다. 또한 남아있는 유스들도 취업을 통해 언제 센터를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띠들은 항상 이별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아띠들은 활동이 합쳐지면서 많은 스텝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스텝들도 아띠들과 얘기를 하면서 전보다 아띠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9월 Feedback의 일환으로 팀원들끼리 함께 하는 시간을 전보다 많이 가지면서 서로에 대한 Feedback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에게 가졌던 불만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고민거리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몰랐던 점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달 Idea?

10월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하지만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알게 된 것 같아서 아쉬웠다. 따라서 11월에는 유적지나 박물관을 관광하게 된다면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관람 했으면 한다. 아는 만큼 많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9월달 Idea로 팀원들끼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서로에 대해 아쉬운 점, 불만스러웠던 점, 실망했던 점 등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했었던 것 같다. 따라서 11월에는 서로에 대해 좋았던 점 등 칭찬 feedback을 하여서 서로에 대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뿌마띠 검색어



라온아띠 10기 캄보디아팀

검색

여자기숙사 쥐 재등장 여자기숙사 흥형진드기 이의성 배보람 완나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쇼핑 |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 N 인터뷰 더보기



뿌마띠 ☆

연합뉴스 | 정재이 "보람단원 1년 안에 결혼한다"

네이버뉴스 | 연예 | 스포츠 | 경제 | 오늘의신문

뉴스스탠드 추설정 언론사를 선택하면 My언론사로 저장됩니다.

주요언론사

이데일리	JOONGANG DAILY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B 블로터닷넷	REUTERS
Net Korea	스포츠조선	디지털타임스	석간 문화일보	jijicom	sportalkorea

1/5 < >

실시간 금상승 검색어

- 10만은지양병설 ↑ 90
- B간사 어린시절 ↑ 129
- 보라 = 텀블러 ↑ 105
- 김은지 짜오 ↑ 87
- 김은지 갱스터 ↑ 819
- 배보람 결혼 **NEW**
- 황유선 부활 ↑ 255
- 이의성 완나 ↑ 252
- 박광욱 새친구 ↑ 96
- 이의성 양어장 ↑ 129



뿌마띠 ☆

오픈캐스트 종합 | 라이프썬미 | 문화엔터 | IT/트렌드 | 여행 | 요리 | My캐스트

캐스트목록

쇼핑 상품검색

RaonAtti

뿌마띠의 말 말 말

총안 나~!!

맛있어요
사사

돌리어 무억!

변비에요 ㄲ ㄲ

게잉 쓰루얼??

잘 샀어??
33

쏟 아오이 미청 씨!!

미청 두 개 주세요^^

Bora's letter



보라 선생님은 아피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YD스텝이며, 누구보다 아피와 함께 많이 얘기하며, 아피를 챙겨주는 고마운 스텝이다. 2달동안 함께 지내온 보라선생님이 아피를 위해서 아피 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었다.

This letter is to give some feedback to Raonatti team who is working for Caritas Cambodia at Youth Development Program and Community Development, Kandal province.

Kissing paragraph

Through my observation I am very appreciate to YMCA team who has been working on teaching Korean language, English language, handicraft, and Korean cooking class. They are working very hard, well prepared, very kind, and very friendly. Every day, they run rashly from time to time, they always discussing with the team all day and night to preparing lesson before teaching our youth and children. I some time see them work over time, working at the break time while our staffs were sleepy...Lolzzzz... moreover, all students are very happy with the Raonatti team and feel grateful of the way they teach with love and compassion. On the other hand, we appreciate with the end poverty campaign that helps us to understand the poverty which is not only state about money, house, car... but also state about knowledge, experiences, love, environment, and so on.

Bora's letter

Kicking paragraph

However, Raonatti team is very young do not have much experiences in teaching, technique, methodology, and motivation. They are not yet adapted to Cambodian culture and environment so that they are questioning a lot, and that is good because they are learning something. They are eating a lot and one feels not good, and complaining when she is hungry... Lolzzzz...

Hugging paragraph

What I like the most, when Raonatti team is smiling, sharing, respecting, humbling and helping other. Event they were in the difficult situation; eating strange food, sleeping in a narrow room with a lot of mice, their freedom are limited, shower room is not properly work, and so on. I like the most when YMCA gathering with the team sharing ideas spontaneously. I like the most, when Raonatti sharing their knowledge, materiel, food, and experiences to our youth with respectful, and humble. I like the most when Raonatti team makes Korean food for us with a big! Big! Smile. I like the most when YMCA said "we are happy when we see the youth and children happy". Which mean their happiness is to make people happy.

Well done Raonatti !

Cheer!

뿌마띠 사진관



포농펜의 붉은 노을





